

변화와 생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절절히 깨달아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성령의 감동을 입은 '2016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예수님의 가상철언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인류를 위해 사랑의 간구를 하시며 믿음 내보인 강도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다.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진주문과 정금길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진주문과 정금길에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질병과 악한 영에서 해방된 인도 미누 자매와 목자의 권능으로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은 장은숙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46호 2016년 7월 1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용서의 차원을 넘어 '사랑의 깊이'를 깨우쳐야



미국, 중국, 이스라엘, 케냐,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 참석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6개 언어로 동시통역되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 마음의 정수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진실로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전했다. 사진은 시종일관 은혜와 감동으로 성령 충만했던 교육과 파워워십팀의 특송.

‘2016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2016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이 '사랑의 깊이'(롬 13:10)라는 주제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강원도 흥천군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열렸다.

대강당 다이아몬드 홀을 비롯 10개의 소강당에는 전국 지역장, 조장, 구역장은 물론 교육을 사모하는 국내외 주의 종과 일꾼, 성도들로 가득 찼다. 전국 43개 지교회와 미국, 중국, 이스라엘, 케냐,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로 동시통역되었다.

교육에 앞서 강사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제를 '사랑의 깊이'로 주신 이유에 대해 '그동안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다시 새롭게 자신의 부족 되고

결여된 분야를 채워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지 이루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랑의 결여와 부족에 대해 육의 사랑의 결여와 영의 사랑의 결여·부족에 대해 실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되며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하나님 마음의 정수(精髓)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진실로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전했다. 아울러 깊은 사랑의 차원을 일곱 단계로 나눠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는, 용서에 한계가 없을 뿐 아니라 용서했으면 기억지도 않는 '용서의 단계', 두 번째는 다시 살 수 있는 바탕과 환경을 만들어 주며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는 '살리는 단

계', 세 번째는 회개하고 변화될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아 주는 '참음의 단계', 네 번째는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갈 귀한 영혼임을 '믿어주는 단계', 다섯 번째는 99개의 단점이 있어도 1개의 장점을 바라봄으로 그것이 넓혀져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바라봐 주는 단계', 여섯 번째는 믿고 바라본 대상이 변화의 열매로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려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단계', 일곱 번째는 기다리는 동안 겪는 고통과 슬픔을 견디며 흘리는 '눈물의 단계'이다.

이 목사는 교육생들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고 마음에 이뤄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천국의 처소,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를 수 있기를 간곡히 눈물로 기도하였다.

한편, 양일간 교육 후 이 목사는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은사집회

를 인도하며, 질병 치료는 물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 시력이 회복되고 갑상선 혹이 사라지는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간증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첫째 날 교육에 앞서 오후 시간에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성령충만 기도회'로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둘째 날 오전에는 이희진 목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 오전에는 오션월드에서 시원한 물놀이 즐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이번 '2016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을 통해 무수한 성도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참 자녀로 나오므로 본격적으로 펼쳐진 제3도약기, 폭발적인 만민의 사역을 함께 이룰 주역이 될 것을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님의 가상칠언 (1)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34, 43)

해 사랑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애매히 핍박을 받을지라도 악으로 대항하거나 감정을 품지 말고 오직 선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마 5:44~45).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제2연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 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반대편 강도는 오히려 그를 꾸짖었지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천국의 처소 ‘낙원’에 대해 알려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가히 이를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했지요(고후 12:2~4). 그 밖에도 성경 곳곳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 등의 표현이 나오므로 여러 하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왕상 8:27 ; 느 9:6 ; 시 68:33).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 외에도 영의 세계의 하늘들이 있지요.

셋째 하늘 곧 천국이 있는 공간에는 사도 바울이 이끌려 갔던 낙원이 있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 등 여러 처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계 21:10~11)은 천국 중에서도 가장 빛단계의 천국으로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 모든 죄와 악을 온

전히 벗어 버리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구원받은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죄악을 버릴 시간도 없었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 것도 없이 간신히 구원의 자격만 얻었을 뿐이었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낙원에 가게 되는데 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소입니다. 낙원과 새 예루살렘 사이에도 천국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각 사람의 성결된 정도와 믿음과 충성에 따라 거하는 처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천국이 분류된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았는지에 따라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처소마다 영광과 상급, 행복과 권세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말씀했습니다. 정녕 믿음이 있으면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한 대로 죄를 버리고 주님을 닮은 만큼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미움, 배신, 간사함, 욕심, 혈기, 간음 등 이런 죄들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은 더 이상 거룩하고 행복한 처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죄악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선과 영으로 일군 것만 가지고 갑니다. 또한 영으로 일군 분량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처소에 모여 살지요. 이 땅에서도 비슷한 또래끼리 함께할 때 더 즐겁듯이 천국도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므로 더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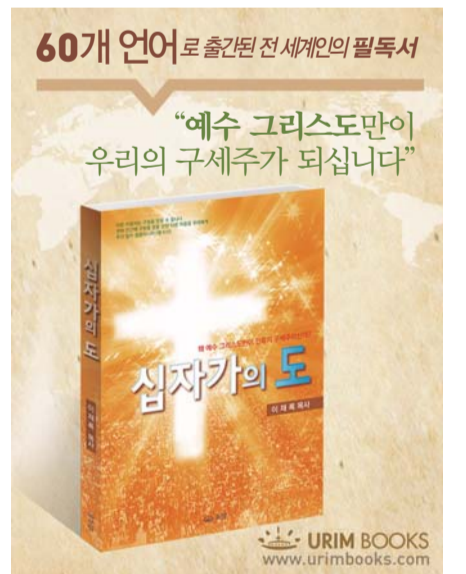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강도와 함께 천국에서 낙원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서는

천국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지만 천국 전체를 통치하시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시점부터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날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했고(마 12:40) ‘그리스도께서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엡 4:9). 또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지요(벧전 3:19).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 낙원이 아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구세주가 되시기 전에 죽은 영혼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모든 인류를 위해 사랑의 간구를 하시고, 믿음을 내보인 강도에게는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은 물론, 천국을 침노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예수님의 가상칠언(架上七言) 중에 제1, 2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인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죄인 된 인류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로마 군병과 이스라엘 백성은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님을 마치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는 중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아가 어둠에 거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였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간구 때문에 오늘날 무수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 죄없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진주문과 정금길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열두 개의 진주문이 있다. 문마다 큰 천사가 지키고 있어 성의 위엄과 권세를 느낄 수 있으며 가까이에서 보면 한참 올라다볼 정도로 큰 아치형으로 되어 있다. 문 전체가 영롱한 빛을 내는 거대한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으며, 양쪽으로 열 수 있도록 황금 보석 손잡이가 달려 있지만 굳이 손으로 열지 않아도 저절로 열린다.

믿음으로 승리한 지난날을 떠올리며 웅장한 아치형 진주문을 지나면 무엇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새 예루살렘의 길이다. 찬란한 정금으로 되어 있으며 맑은 유리과 같다. 그러면 천국의 수많은 보석 중에서 진주로 문을 만들고 정금으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 21:21)

진주의 생성 과정을 보면 일반 보석과 달리 고 통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문을 진주로 만드신 것이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은 맑은 유리 같은 마음을 이룬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하며 침노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에 영적 믿음을 의미하는 정금으로 길을 만드셨다.

열두 진주문을 통과하려면 인내함으로 믿음의 연단을 이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신다. 자신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자녀들이 연단받고 고통받을 때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면 자신을 발견해 죄악을 버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여 연단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악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심히 아프고 힘들며 잠시 낙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힘을 내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진액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미움을 벗겨내는 만큼 사랑이 맺혀가고, 힘을 다해 혈기와 감정을 벗겨내는 만큼 온유가 맺혀간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벗어 버리기 위해 진액을 다해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성결의 열매로 나와 기쁨이 되겠나이다.” 하며 감동의 고백으로 기도하게 된다.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마음에 충만함을 잃지 않고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것이 연단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모든 연단을 이겨내고 결국은 개선장군과 같이 눈부신 영광 가운데 진주문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금길, 영적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맑은 마음을 지녀야

생명수 강 좌우에도 정금길이 있는데,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을 지나 천국의 모든 처소를 두루 돌아 다시 하나님 보좌로 흘러 들어간다(계 22:1~2). 영적으로 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요 14:6)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생명수 강이 천국 전체를 두루 도니 그 좌우에 있는 정금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물론 천국의 모든 처소에는 정금길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각 처소마다 집의 빛과 재질, 아름다움이 다른 것처럼 정금길도 처소마다 빛이 다르다.

천국의 정금은 단단하지만 정금길을 걸을 때에는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받는다. 천국은 먼지나 더러운 것이 없고 닳아 없어지지도 않으므로 아무리 많이 걷는다 해도 길이 훼손되지 않으며, 길가에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갑게 맞아 준다.

이 외에도 꽃길, 보석길 등 아름답게 펼쳐진 길이 많아

서 각각의 길을 걸을 때마다 그 느낌과 행복이 다르다. 천국의 꽃길은 꽃 자체로 이루어진 길로서 그 위를 걸으면 마치 양탄자 위를 걷는 것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꽃 위를 걸어도 꽃들이 짓눌리거나 상하지 않으며, 꽃들은 기뻐하며 향기를 마음껏 발산한다. 향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어 더 큰 즐거움과 충만함을 얻는다.

온갖 보석이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오색찬란한데, 밟을 때마다 한층 더 아름다운 빛을 낸다. 또한 보석들이 향기까지 내니 걷는 기쁨이 더하며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상쾌하고 황홀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보석길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진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닦았을 뿐 아니라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큰 공헌을 한 사람의 집과 그 주변에 특별히 만들어 주신다.



천국은 이 땅에서 살아온 하루하루와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러진 모든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진주문을 통과할 때는 ‘내가 어떠한 인내의 세월을 거쳐 이 귀한 천국에 들어왔는지’, 정금길을 걸을 때는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떠올리게 된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므로 신속히 성결을 이루고 맡겨진 모든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아들, 딸이라 칭찬받고 장차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7 Green July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7.10~ 7.16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아버지의 뜻 ■ 믿음
- 2차 영혼육 5-9 ■ 천국 28-34
- 창세기 강해 71-75 ■ 선 11
- 치료와 응답의 공의 1-2
- 공부 잘하는 비결 8-11
- 요한일서 강해 13-16
- 성령의 9가지 열매 1-5

GCN TV설교

- 팔복 11 (이수진 목사)
-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들 (이미영 목사)
- 막달라 마리아 2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32 (이희선 목사)
- 옴기 강해 20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6 (정구영 목사)
-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자 (조수열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9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60
- 내 마음의 찬양 35
- 창조와 과학 9 ■ English 15
- 모두 드려요 52 ■ 뷰티풀 라이프 2
- 즐거운 요리 26 ■ 흥겨운 소리 6
- 옛날 옛적에 10

해외성회 프로그램

- 필리핀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1
- 회상 (시즈2) 6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질병과 악한 영에서 해방되었어요!”

미누 자매 (27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부모님(우), 남동생(좌)과 함께.

저는 2012년부터 악한 영을 자주 보게 되면서 너무나 무섭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때는 귀신들이 저를 데려가자고 하는 대화 소리와 함께 흉측한 모습이 보였고, 잠을 자려고 하면 가위에 눌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요. 게다가 야뇨증까지 겹쳐 큰 심적 고통을 느끼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자살을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외삼촌이 신장결석 때문에 크게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외삼촌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고 결석이 24 mm로 커져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신장이식을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셨다가 외삼촌 소식을 듣게 된 작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질병을 치료받은 사실들을 전해 주셨지요.

저는 외삼촌이 너무 걱정되었던 터라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2015년 3월, 지교회인 델리만민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외삼촌을 위해 끼니급식을 하며 기도하였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행 19:11~12)으로 외삼촌을 대신해 담임 김상휘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외삼촌의 몸이 호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어느새 저도 변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힘쓰니 매사에 혈기가 많고 남을 미워하던 제가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떠나 제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했지요.

저는 외삼촌이 신장이식을 받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외삼촌에게 권능의 무안단물을 드렸습니다.

외삼촌은 무안단물을 마셨고 이후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수술도 잘되었고 신장이 제대로 움직여 이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한 외삼촌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아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손수건 집회 시 남동생과 저도 치료받은 것

입니다. 남동생은 서해부 탈장(배 속 내장이 압력 등 여러 원인으로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복벽이 약한 부분으로 튀어나오는 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저는 야뇨증으로 고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욱이 작은 아버지와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열렬한 헌

“망가진 신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2008년부터 신장결석으로 인해 계속 약을 복용했으나 7년 뒤에는 의사로부터 양쪽 신장에 많은 결석이 생겨 신장이 잘 움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이 망가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조카 미누가 델리만민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더니 저를 대신해 김상휘 담임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고 무안단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무안단물을 마시고 수술을 통해 결석을 제거했는데, 뜻밖에 모든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회복되어 이식할 필요도 없게 되었지요.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삼촌 라빈더 쿠마르(50세)

두교도였던 저희 아버지까지 전도되어 이제는 모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치료해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30년 된 피부병 등 온갖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장은숙 집사 (63세, 연천만민교회)

2010년 5월, ‘연하곤란’이라는 난치병에 걸려 식사도 잘하지 못하고 죽어가던 남동생(연천만민교회 담임 장봉순 목사)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은 일을 계기로 저는 만민의 양떼가 되었습니다.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게 되었지요.

30년 전, 목욕탕에 다녀온 뒤로 손등과 팔, 다리에 불룩하게 물집이 잡히고 너무 가려워서 긁고 나면 환부가 도장 부스럼같이 되고 진물도 났습니다. 여름이 되면 관찰다가도 가

이 되면 어김없이 피부병이 도져 겨울, 봄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저는 환부에 무안단물(출 15:25,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짚물이 단물로 변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용할 때 권능의 역사를 체험함)을 수시로 뿌렸는데 어느샌가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산후풍 증세가 있어 찬바람이 불면 옷속이 너무 시리고 고통스러워 휴지를 옷속에 말아 넣거나 마스크를 써야 잠을 잘 수 있었는데 그 증세도 깨끗이 나았지요.

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와 위궤양, 손가락 관절염도 치료받아 손가락 마디마디에 있던 혹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의 많은 질병을 감쪽같이 치료해 주셨고, 여선교회 헌신예배 때 정성껏 예물을 심은 뒤로는 시골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지난날 제 삶에는 가난과 어려움이 많았는데, 생명의 목자를 만나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